

# 승리제단의 교리는 오직 하나뿐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전 인류가 하나가 된다

### 승리제단의 교리는 하나뿐

우리 승리제단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찍이 말씀드렸죠? 우리 제단의 교리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야 맞을까, 두 가지가 있어야 맞을까? 하나밖에 없어야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고,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요, 하나가 되어야 평가가 오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죄를 질 수가 없는 고로 교리가 하나밖에 없어야 그게 맞는 진리인 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리야. 두 가지 얘기하는 건 우리 교인이야, 마귀새끼야? 그런 마귀새끼야.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고로 형제의 죄가 내 죄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형제의 죄가 내 죄요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이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남을 미워하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거야, 안 여기는 거야? 자유율법을 어긴 거죠? 미워하는 게 자유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교리는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야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죄가 없어졌다가 되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마귀가 없어졌다가 되고 나라는 게 없어지면 하나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 자유율법의 근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념의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한 가지냐 욕심이 나올까? 저 사람이 내 몸 인고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이 가졌다가 되는 고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과 탐이 날까, 안 날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각 때문에 욕심도 안 나고 탐도 안 나는 고로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자유율법의 근본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말이 다른 율법이야, 같은 율법이야? 같은 율법이야? 이 세상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인고로 하나님을 가지고 돌로 쪼개고 돌을 가지고 빛으로 쪼개고 빛을 가지고 여덟으로 쪼개고, 여덟을 열여섯으로 쪼개고 열여섯을 삼십이로 쪼개고 자꾸 쪼개나가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이옵습니다. 그러나 이제그대로 천 가지, 만 가지도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고로 하나님의 신은 바로 화복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던 거죠?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하



구세주 조희성님

나님 되는 율법도 되지만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고로 이긴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고 그랬죠? 질그릇 깨뜨리듯이 뭘 깨뜨리냐면 바로 마귀의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게 그게 철장이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제단의 교리요 영생의 교리요, 마귀 죽이는 교리요, 마귀 죽이는 무기인고로 영생하는 비결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됐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

이요, 생명과일이요, 믿음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됐다가 된 거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이 되는 거죠?

### 죄 짓지 않는 비결

진리라는 건 간단한 게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왜 어려우냐면 마귀가 이제그대로 한 가지를 가지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로 쪼개놓으니까 어려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그대로 진리라는 건 하나요, 이제그대로 하나는 바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인고로 하나님이 하나요, 진리가 하나님인고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속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일찍이 했어, 안 했어?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게 이게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요? 이걸 11년간 내가 외쳤는데도 아직도 우리 제단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제단 교리를 여기는, 자유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생활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미운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욕심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욕심이 안 나오니까 이제그대로 죄를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죄를 지려야 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게 포인트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하나가 된다는 게 포인트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내 몸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요. 이제그대로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고로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된 것이 되니까 미운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미운 마음이 안 나오죠? 이게 도를 닦는 법이야. 이 사람이 도를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고로 여러 가지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고, 희생적인 마음이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이 사람도 내 몸이요 저 사람도 내 몸이니까 이 사람 일도 도와주게 되고 저 사람 일도 도와주게 되고 누구든지 다 도와주게 되니까 저절로 희생적인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죠? 그 희생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철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지 않으면 희생적인 마음이 나올까? 안 나와.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1992년 11월 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4장 요셉》

## (6)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 (6)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다

야곱은 이삿짐을 꾸려 가지고 헤브론의 마브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먼저 브엘세바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하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니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나는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도 너와 같이 애굽에 갔다가 틀림없이 다시 이곳으로 데려다주마. 요셉은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눈물을 감겨 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내들을 태워가리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가나안에서 모든 모든 가족과 재산이 뒤따랐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

곱의 만아들 르우벤과

9절;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0절;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아민과 오핫과 야진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11절;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13절; 잇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와 율과 시므론이요

14절;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15절; 이들은 레아가 뱃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삼명이며

16절; 갓의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17절;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살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십륙명이며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

과 베냐민이요

20절;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야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뫼와 훌뫼와 아롯이니

22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십 사명이며

23절; 단의 아들 후심이요

24절;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25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칠 명이라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욕심 륵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이집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떠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칠십 명이었습니다. 칠십 명 모두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열두 아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 유다와 아셀은 손자까지 봤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 대부분이 아들 세 명 이상을 보았고 베냐민의 경우에는 열 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단(Dan)만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보았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빌하에 속한 자손은 7명인데, 아들 2명과 손자 4명 이외에 손녀 1명 - 창46:23-25 참조

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들이 성령으로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전에 아브라함이 분처 사라고부터 얻은 아들이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보기에 이삭이 성령으로 따라 난 자임을 희미하게 감지하였기에 아브라함의 첩 하갈로 하여금 이삭과 그 아이를 낳은 사리를 핏바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야곱 이후부터는 장자 상속을 받을 자를 숨겼던 것입니다.

단의 아내 바스밧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후심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에서의 손녀이자 이스마엘의 외손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난 단의 아들



70여명의 야곱의 가족이 양과 소떼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다(창47:1)

이름을 '후심'이라고 지었습니다.

후심(Hushim)이란 히브리어로 '서두르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거기에는 비록 단의 아들 후심 하나에서 시작하였지만 다른 열한 형제들이 낳은 많은 아들들을 능가하여 나중에 가서 심히 창대하여 열두지파를 대표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단의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단의 아들 후심 이름도 나중에 수함으로 바뀌어 불렀습니다. 수함이란 '우물을 파는 자'라는 뜻으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수함의 후손에서 나오실 것을 예표(豫表)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대로 너희

는 이십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21;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22;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칠만 육천 오백명이었더라

42절;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cf. 창 46:23, 후심)

43절; 수함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육만 사천 사백명이었더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